AI 활용사례 | 증빙 기반 제출 자료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펼치는 공간

PYODA BOOKS | 1인 창작자의 출판 업무에 AI를 적용하다

한 줄 요약

원고 준비부터 출판 업무와 작가용 모바일 인터페이스 설계까지, 한 사람의 창작 역량을 AI로 확장한 실제 개발 사례

처음 품었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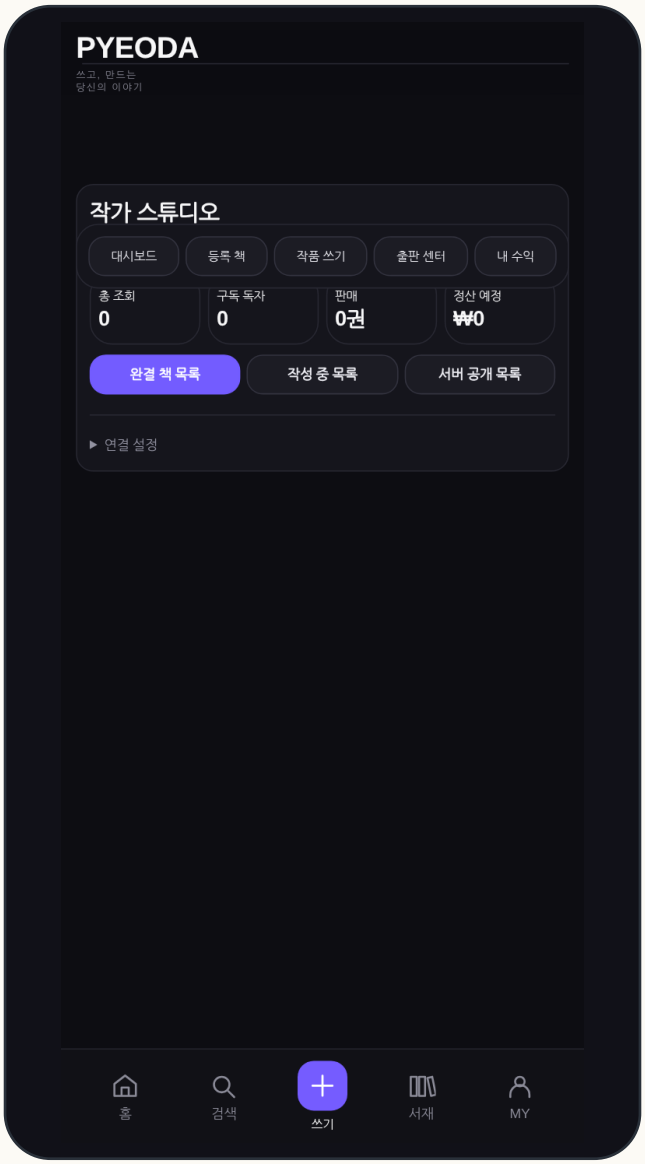
글을 쓰는 누구나 편집·조판·언어·플랫폼 기술 장벽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AI가 책을 대신 써주는 도구가 아니라 창작자의 일을 덜어주는 동료가 될 수 있는지 직접 시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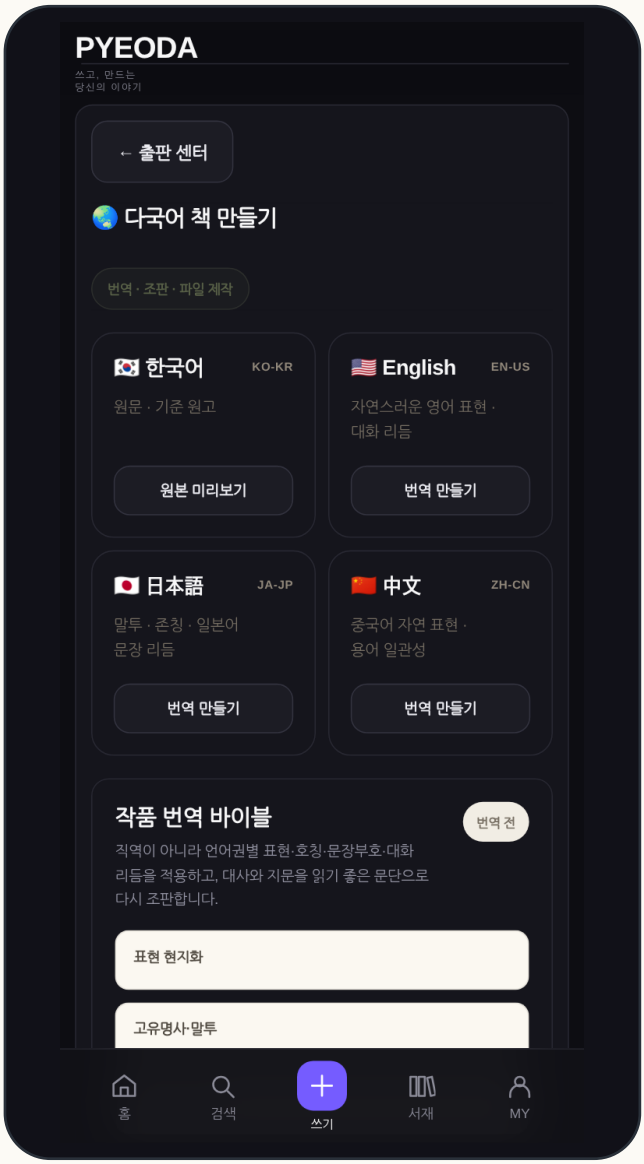
AI와 함께 만든 과정

01 문제 정의	원고를 작성해도 교정, 표지, 형식 변환, 판매 등록에 많은 개별 기술이 필요했다.
02 AI 협업	ChatGPT로 글의 구조·문장·독자 소개문과 다국어 출판 작업 절차를 반복 점검했다.
03 앱 화면 설계	독자를 위한 홈/발견/서재와 작가를 위한 스튜디오/출판 센터의 흐름을 구축했다.
04 검토와 수정	화면 가독성, 모바일 메뉴, 로그인·작품 관리 흐름을 반복적으로 검토했다.
05 실제 결과	책·작가 관리 및 다국어 출판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화면 시제품을 확보했다.

실제 개발 산출물 확인



[화면 1] 작가 스튜디오



[화면 2] 다국어 출판 UI

좌: 대시보드·책 등록·글쓰기·출판 센터 메뉴의 실제 HTML 화면 구성. 우: 원고·번역·조판 흐름을 위한 UI.

증빙 성격: 저장된 앱 소스 HTML을 모바일 환경에서 렌더링한 개발 화면입니다. 계정 로그인·실제 이용자 통계가 연결된 운영 화면은 아닙니다.

개발 자료 출처: https://github.com/jeyukida-eng/pyeoda

확인 가능한 성과

확인된 화면	모바일 홈, 작가 스튜디오, 다국어 출판 메뉴
반복작업 지원	원고 검토·출판 정보 정리·번역 기획을 AI와 분담
창작자 중심 UX	책 등록→글쓰기→출판 센터→수익 화면 흐름 설계

현재 상태와 검증 범위

- 화면상 조회 0·판매 0 등은 오프라인 미리보기의 초기값이며 실사용 성과가 아니다.
- 다국어 번역·전자책 자동 생성 버튼은 화면 설계 확인 단계이며 모든 프로세스가 운영 환경에서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실제 등록 작가 수, 서비스 판매액, 독자 사용률은 검증 자료가 없다.

첨부·검증 자료 목록

1. 저장된 PYODA_BOOKS.html 원본을 420×900 모바일 화면으로 렌더링
2. 작가 스튜디오와 다국어 출판 인터페이스 내부 DOM 확인
3. 출판 업무와 AI 원고·번역 작업 이력

책임 있는 활용 원칙

실제 경험만 기술하고, 개발 중인 기능과 사용 실적은 구분한다. AI가 만든 문장·이미지·음원·지역 정보는 창작자가 최종 검토한다.